

고바야시 마사루 「포드 1927」의 시공간 구조와 역사적 상상력*

최범순**

bohemiankobe@ynu.ac.kr

<目次>

- | | |
|--------------------------|--------------------------|
| 1. 시작하며 | 4. 차이와 단절, 그리고 ‘소문’ |
| 2. 「포드 1927」의 다층적 시공간 구조 | 5. 총과 광기, 그리고 3.1운동의 그림자 |
| 3. 식민지 조선의 ‘터키인과 포드’ | 6. 마치며 |

주제어: 고바야시 마사루(Masaru Kobayashi), 식민지 조선(colonial Korea), 3.1운동(3.1 Movement), 재조일본인(Japanese in Korea), 아시아·태평양전쟁(Asian Pacific War), 전후 일본(postwar Japan)

1. 시작하며

「포드 1927(フォード・一九二七年)」은 고바야시 마사루(小林勝)가 『신일본문학(新日本文学)』 1956년 5월호에 발표한 소설이다. 이 소설은 다음해 상반기 아쿠타가와상 후보에 오를 정도로 당시 주목을 받았다. 덧붙이자면 『신일본문학』 1956년 12월호에 발표한 또 다른 소설 「군용로어교정(軍用露語教程)」도 다음해 하반기 아쿠타가와상 후보에 오른다. 고바야시 마사루는 이 두 작품을 포함해 1956년에 창작한 여섯 편의 소설을 묶어 1957년 5월에 첫 소설집 『포드 1927』을 간행하는데, 이 작품집을 계기로 그는 “‘20대 작가의 희망’의 한 사람”으로 주목을 받는다. 히라노 겐(平野謙)은 “민주주의 문학이 낳은 거의 유일한 재능 있는 신인”으로 고바야시 마사루를 꼽으면서 문예시평에서 그의 작품 대부분을 언급했다.¹⁾ 「포드 1927」은 이러한 평가의 중심에 서 있던 작품이다.

첫 소설집 이후에도 고바야시 마사루는 활발한 창작활동을 지속한다. 작품의 제재도 식민지 조선 경험과 패전 전후를 대상으로 한 것에서 보다 확대되어 1950년대 전반기 일본사회를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A2A01026600)

** 영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부교수

1) 藤井徹(1975)「解題」『小林勝作品集第一卷』白川書院, p.358

배경으로 한 소설과 1952년 ‘화염병사건’을 계기로 투옥되면서 경험한 감옥 세계를 그린 소설 등으로 다양해진다. 그러던 중 1966년 폐 절제수술 이후부터 고바야시 마사루는 다시 전후 일본사회와 식민지 조선을 대면시키는 소설을 집중적으로 발표한다. 1970년 4월에 간행한 소설집 『썩빠리(チョッパリ)』와 1971년 5월 사후에 간행된 『조선·페이지 52년(朝鮮·明治52年)』은 폐 절제 수술 이후의 문체의식을 담은 작품집이다. 이러한 고바야시 마사루의 행적이 전후 일본문학사에서 지니는 의미는 “진실로 생애를 바쳐 오로지 조선이라는 테마에 정열을 바치고 그 정열을 죽을 때까지 불태웠던 작가”²⁾라는 말이 잘 함축한다.

고바야시 마사루는 첫 소설집 『포드 1927』 이후 1950년대 후반만큼의 주목은 받지 못하지만 그가 1971년 3월에 세상을 떠난 후 노마 히로시(野間広), 하세가와 시로(長谷川四郎), 스가와라 가즈미(菅原克己), 나카노 시게하루(中野重治)가 1975~76년에 걸쳐 『고바야시 마사루 작품집(小林勝作品集)』을 총 다섯 권으로 편집·간행한 것을 보면, 표면적인 주목도와 달리 고바야시 마사루가 이른바 ‘민주주의 문학’ 진영에서 존재감을 계속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고바야시 마사루 작품집』 이후 가와무라 미나토(川村湊)가 1996년에 「고바야시 마사루 외전(小林勝外伝)」³⁾이라는 글에서 다시 언급할 때까지 이른바 선행연구 차원의 관심은 완벽에 가까운 공백기를 보인다. 그리고 박유하가 2008년에 “지금까지 거의 잊혀져 온 감이 있는 고바야시 마사루의 작품군”⁴⁾이라고 표현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1990년대 이후에도 그 양상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본고는 고모리 요이치(小森陽一), 나리타 류이치(成田竜一), 이와사키 미노루(岩崎稔) 세 사람이 1940~50년대 일본을 재점검하는 좌담회에서 고바야시 마사루를 재평가 대상으로 꼽은 부분에 주목했다. 해당 좌담회에서도 고바야시 마사루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전후 일본에 대한 재점검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흥미로운 것은 2009년의 좌담회 이후 부족하나마 고바야시 마사루 관련 선행연구 논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단 그 편수가 모두 합쳐 20편에도 이르지 못한다는 점에서 고바야시 마사루 연구가 본격화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초기 대표작으로 꼽히고 동시대 문단이 높이 평가한 「포드 1927」조차 집중적으로 다룬 선행연구는 4편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고바야시 마사루의 문학은 여전히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것이다.

본고의 문체의식은 1950년대 후반에 “민주주의 문학이 낳은 거의 유일한 재능 있는 신안”으로 주목받았고 당대를 대표하는 문학자들의 관계망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시점에 일본의 대표적 연구자들이 “전후 일본을 재점검하고자 할 때 재평가해야 할 존재”로 언급할

2) 朴元俊(1971)「小林勝氏の急逝を悼む」『朝鮮研究』104日本朝鮮研究所、p.50

3) 川村湊(1996)「大東亜の戦後文学第六回：小林勝外伝」『文学界』50(5)、文芸春秋社、pp.278-296

4) 朴裕河(2016)『引揚げ文学論序説：新たなポストコロニアルへ』人文書院、p.111

때까지 고바야시 마사루의 문학이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는 사실에서 출발했다. “고바야시 마사루 문학이 지금까지 묻혀 왔다”는 사실 그 자체가 근대 일본과 식민지, 혹은 전후 일본문학사에 대한 중요한 문제제기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진실로 생애를 바쳐 오로지 조선을 테마로 해서 정열을 바치고 그 정열을 죽을 때까지 불태웠던 작가”라는 점이 1960년대 이후 일본사회에서 고바야시 마사루를 ‘불편한 작가’로 밀어내었다는 추론을 접을 수 없다.

본고는 당대 일본문단에서 큰 주목을 받고 현대의 대표적 일본연구자들이 재평가 필요성을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고바야시 마사루의 초기 대표작 「포드 1927」을 총체적이면서도 심도 있게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작품 전체의 다층적 시공간 구조에 대한 정치한 분석,⁵⁾ 작품에 등장하는 터키인에 대한 새로운 검증과 분석,⁶⁾ 지금까지 간과되어 온 소설 속 ‘소문’이라는 요소에 대한 분석, 작품 속 두 사건에 등장하는 ‘총’⁷⁾과 3.1운동의 연관성 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재조일본인들의 집단 트라우마-집단지억 측면에서의 검증도 시도할 것이다. 또한 「포드 1927」을 첫 소설집 『포드 1927』이라는 콘텍스트 속에서 횡단적으로도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횡단적 접근은 고바야시 마사루의 「포드 1927」이 작품이 발표된 1956년의 전후 일본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5) 지금까지 「포드 1927」의 시간 혹은 공간 구조에 주목한 논문은 다음 두 편이 있다. 오미정(2011)은 ‘회상’이라는 형식에 주목했지만 작품의 시작과 끝 부분만을 언급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본고는 보다 세부적으로 1945년, 1927년, 1940년대 아시아태평양전쟁 말기와 같이 시간 구조의 다층성에 주목하면서 각각의 시간층과 공간 구조의 연동까지 시야에 넣어 작품 전체에 걸쳐 분석했다. 井上幸子(2015)는 주로 장소 측면에 주목해서 그것을 전쟁인식 측면에서 제한적으로 논하는 데에 머물렀다. 오미정(2011) 「고바야시 마사루의 「포드·1927」론 -중개는 가능한가?」 『일어일문학연구』 제78호, 한국일어일문학회, pp.315-330. 井上幸子(2015) 「戦後日本と小林勝「フーオド・一九二七年」の場所の構成と戦争認識」 『日本近代学研究所』第50輯, pp.281-301

6) 「포드 1927」에 등장하는 터키인에 대해서는 오미정(2011)과村上陽子(2016)이 짧게 논하고 있다. 오미정(2011)의 경우는 터키인을 중개자로 파악한 후 그 중개불가능성을 논하고 있다.村上陽子(2016)은 작품 속에서 재조일본인과 차이를 보여주는 존재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본고는 식민지 시기 조선의 터키인과 터키인식 측면에서 조사한 내용에 입각해 소설텍스트와 역사적 상황의 콘텍스트 측면에서 새롭게 분석했다.村上陽子(2016) 「植民者二世と銃-小林勝「フーオド・一九二七年」について」 『沖繩国際大学日本語日本文学研究所』第21巻1号, pp.89-105

7)村上陽子(2016)은 작품에 등장하는 ‘총’과 관련된 장면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했다. 이에 대해 본고는 ‘총’과 관련된 장면을 재조일본인의 심리적 측면 및 3.1운동과의 연관성 측면에서 새롭게 다각적으로 분석했다.

앞서 소개하지 않은 「포드 1927」 관련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원희(2001) 「고바야시 마사루 문학에 나타난 식민지조선」 『일어일문학연구』 제38집 한국일어일문학회, pp.215-232. 하라 유스케(原祐介, 2011) 「그리움을 금하는 것 -조선 식민지2세 작가 고바야시 마사루와 조선에 대한 향수-」 『일본연구』 제15권 고려대학교그로벨일본연구원, pp.311-332. 최준호(2011) 「고바야시 마사루의 식민지 조선 인식 -초기 작품들 속 인물표상을 중심으로」 『일본어문학』 제48집 한국일본어문학회, pp.139-156. 이들 선행연구는 주로 ‘조선 인식’ 측면에서 접근했다. 이에 대해 본고는 해당 작품이 식민지 시기 조선인식 문제보다도 1950년대 후반이라는 전후 일본사회 맥락에서 작품을 분석·평가하고자 했다.

지니는지를 밝히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를 통해 뒤늦게나마 고바야시 마사루가 1950년대 후반기에 “민주주의 문학이 낳은 거의 유일한 재능 있는 신인”으로 평가 받았던 이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한다.

2. 「포드 1927」의 다층적 시공간 구조

고바야시 마사루의 소설 「포드 1927」은 1945년 패전 시점에 중국의 지난(濟南)에서 시작한다. “부대는 이미 인양지(引揚地)를 향해 출발했고, 나와 그는 지난(濟南) 근처의 황폐한 언덕 위에 있는 어느 민가의 흙바닥에 암페라를 펴고 누워 있었다. ... 나는 육군 이등병이었다”⁸⁾라는 소설 도입부 문장은 작품 속 현재 시간과 장소를 특정해준다. 인용문 속 ‘나와 그는 폐결핵으로 인해 부대에서 나오한 육군 이등병 ‘나’, 그리고 함께 남은 위생병 ‘그’이다. 소설은 두 명의 일본군 패잔병의 대화로 시작하는데, 화제의 중심은 의외로 터키인이다. 이등병인 나는 예전에 살던 식민지 조선의 마을에 터키인이 처음 나타났을 때와 오랜 시간 후 터키인 일가가 마을을 떠날 때의 광경을 상등병에게 들려주지만 상등병은 “너는 그 터키인이 마을에 왔을 때도 나갈 때도 보지 못했잖아”라는 “짓곳은 조소”로 대응한다. 상등병의 조소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음속에서 “터키인이 마을에 들어온 것은 쇼와 시대가 시작할 무렵이었다. 나는 젓먹이였다. 터키인이 마을에서 나갔을 때 나는 도쿄의 외국어학교 학생이었다. 그러나 나에게 그 때의 풍경이 눈에 보일 뿐만 아니라 말소리조차 들려왔던 것이다”⁹⁾라고 독백한다. 이 도입부 대화는 식민지 조선을 배경으로 한 소설로 각인되어 있는 「포드 1927」이 실은 1945년 패전 시점의 중국 지난에서 시작한다는 사실, 즉 해당 작품이 다층적 시공간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본 장에서는 이 시공간 구조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등병 ‘나’의 마음속 말에 있는 “쇼와시대가 시작할 무렵”이라는 구절이 보여주듯이 소설 「포드 1927」은 1945년 패전 시점에 중국 지난에서 1927년 이후의 시간을 회상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이 회상 구조가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도입부에 있는 두 일본군 패잔병의 대화는 곧바로 1937년으로 추정되는 회상 속 시간으로 전환되고 그에 따라 소설의 공간도 이등병 ‘나’가 소학교 5학년 시점에 살았던 “낙동강 발원지 마을”로 바뀐다. 그리고 터키인은 이렇게 전환된 장면에서 중요한 존재로 등장한다. 터키인이

8) 小林勝(1975)「フォード・一九二七年」『小林勝作品集第一巻』白川書院、p.7

9) 小林勝(1975) 앞의 책、p.8

소유하고 있던 포드 자동차를 설명하는 대목에는 “그것은 이제 한 옛날 전(一昔前)의 오래된 포드였다”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을 통해 작품 속 시간은 잠시나마 1937년에서 10년을 더 거슬러 올라가 터키인이 마을에 처음 나타났던 1927년 무렵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런데 「포드 1927」 속 회상의 구조는 1937년 내지 192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에만 머물지 않는다. 이동병 ‘나의 회상은 1927년까지 거슬러 올라간 후 마치 유턴을 하듯이 다시 1937년을 경유해 1940년대 아시아·태평양 전쟁 말기의 일본 도쿄로 거슬러 내려온다. 그리고 이렇게 회상이 전환할 때마다 소설의 시간은 순간적이거나 1945년 시점으로 돌아오기도 한다. 예를 들어 소설 도입부의 1945년 패전 시점에서 1937년 무렵의 첫 번째 회상 시간대로 넘어가는 대목에는 “내 눈 앞에는 흙벽이 서 있었다. 그리고 시선을 천천히 위로 올리자 네모난 작은 창이 열려 있었다. 그 창문 너머에 새파란 하늘이 있었다. ‘이 대륙과 육지로 이어진 머나먼 하늘 아래...’라고 나는 입 속에서 중얼거렸다”¹⁰⁾는 문장이 있는데, 해당 회상이 끝나는 지점에 작가는 “일찍이 낙동강 발원지 마을에서 그곳과 육지로 이어진 똑같은 새파란 하늘 아래의 아주 머나먼 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 머나먼 곳이란 바로 여기였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반대로 이 지점에서 네모난 창을 통해 아주 머나먼 낙동강 산골 마을을 떠올리고 있다”라고 호응하는 형태의 문장을 배치하고 있다. 또한 회상이 1940년대 도쿄로 전환되는 대목에는 “머나먼 곳에서 벌어지던 전쟁은 이름도 대동아전쟁으로 바뀌어 도쿄의 하늘에까지 와 있었다. 몇 년 전에 직접 눈으로 보고 싶다고 공상하던 공중전은 매일같이 내 머리 위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문장이 있다. 소설 「포드 1927」은 다양한 과거 속 시공간을 다층적으로 배치하면서도 회상이 전환되는 지점마다 유사한 문장을 반복적으로 구사해 작품의 현재 시간이 1945년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그와 동시에 개별 회상들을 ‘전쟁’이라는 요소로 꿰고 있는 것이다.

고바야시 마사루의 소설 「포드 1927」은 ‘1945년 → 1937년 → 1927년 → 1940년대 → 1945년’과 같은 회상의 시간 구조와 연동해 공간도 ‘중국 지난 → 식민지 조선의 마을 → 전쟁말기 일본 도쿄 → 다시 식민지 조선의 마을 → 다시 중국 지난’과 같은 순서로 전개된다. 그렇다면 고바야시 마사루는 왜 이렇게 다층적 시공간 구조를 짠 것일까? 이에 대한 답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소설 「포드 1927」이 왜 1945년 패전 시점의 중국 지난에서 시작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포드 1927」을 재조일본인 식민자 2세 소년의 감성과 사고를 다룬 작품으로 평가하면서 소설의 시작과 끝, 달리 표현하면 소설 전체를 감싸고 있는 ‘1945년 중국 지난’이라는 설정을 간과했다.¹¹⁾ 이로 인해 회상 속에서 전개되는

10) 小林勝(1975) 앞의 책, p.8

11) 오미정(2011), 앞의 논문, p.315, p.320. 오미정(2011)은 가장 먼저 작품이 중국의 지난에서 시작한다는

다양한 시공간 층위 가운데 “낙동강 발원지 마을”에서 전개되는 하나의 층위에만 주로 주목해 왔다. 이러한 점에서 다층적 시공간 구조에 주목한 본고의 착안은 「포드 1927」에 대한 새로운 이해로 연결될 수 있다. 고바야시 마사루의 소설 「포드 1927」은 재조일본인 식민자 2세 소년의 감성과 사고를 그린 작품¹²⁾이라기보다는 1945년에 패전을 맞이한 일본군 패잔병의 시점에서 다양한 체험과 기억, 그리고 상상을 전개시키고 있는 텍스트인 것이다.

「포드 1927」이 1945년 패전 시점에 중국 지남에서 폐병으로 부대에서 낙오한 일본군 패잔병의 시점에서 시작하고 끝난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 보면 전쟁이 다층적 시공간 구조의 회상들을 관통하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하게 다가온다. 1937년은 다름 아닌 중일전쟁이 발발한 시점이고, 1940년대는 중일전쟁이 태평양전쟁으로 확대된 시기이다. 앞서 인용했듯이 고바야시 마사루는 1937년 시점을 회상하는 부분에서 “잡지의 모든 페이지에서 초연의 냄새가 올라왔다. 이 마을과 육지로 이어진 머나먼 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문장을 배치해 독자로 하여금 중일전쟁을 떠올리게 하고, 1940년대 전반기 일본 도쿄를 회상하는 부분에서는 “머나먼 곳에서 벌어지던 전쟁은 이름도 ‘대동아전쟁’으로 바뀌어 도쿄의 하늘까지 와 있었다”라는 문장으로 태평양전쟁을 원경에 배치하고 있다. 작품 속 현재인 ‘1945년 중국 지남’도 앞선 전쟁들의 연장선에 있음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은 1927년이라는 시간도 실은 전쟁의 연쇄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1931년부터 시작된 아시아·태평양전쟁, 혹은 15년 전쟁과 관련해서 많이 언급되지는 않지만 중국 지남에서 일어난 ‘지난 사건’은 실은 아시아·태평양전쟁의 시발점이 되었던 사건이다. 지난 사건은 “일본인 거류민 보호를 명목으로 파견된 일본군과 국민혁명군 사이에서 발발한 최초의 군사적 충돌”이었고, 이것이 1931년부터 시작되는 15년 전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일본의 관동군 일부가 산둥성에 파견되어 지남으로 진군한 시점은 1927년 7월 7일이었고, 이후 1928년의 지난 사건 발발 후 일본군이 지남을 점령하게 된다. 이렇게 지난 사건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면 소설 「포드 1927」이라는 소설 제목 속 시간의 함의와 다층적인 시공간 구조의 의도는 보다 명확해진다. 고바야시 마사루는 일본군이 지남에 진군한 1927년부터 1945년까지

점과 ‘회상’에 주목한 선행연구이다. 단, 중국 지남과 1945년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보다 다층적인 시공간 구조에는 착목하지 않았다.

- 12) 長谷川四郎(1975)은 고바야시 마사루 작품집 해설에서 “「포드 1927」은 이른바 미분화된 어린이 시절의 산물로 반성과 같은 것은 아직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다”고 서술했다. 이 때문인지 고바야시 마사루의 초기 작품은 종종 ‘소년의 시선과 감성’ 혹은 ‘조선에 대한 노스탤지어’라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하지만 본고는 해당 작품이 1945년 패전 시점의 일본군 패잔병 시점에서 서술되고 있고, 이러한 시선에 기초한 반성적 태도가 분명히 담겨 있음을 밝혔다. 나아가 해당 작품은 1945년 이전의 시간에 갇혀 있는 작품이 아니라 1950년대 후반이라는 전후 일본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더 컸다는 점도 밝혔다. 長谷川四郎(1975)「解説 小林勝」『小林勝作品集 第一卷』白川書院, p.356

지 이어진 전쟁을 그 시발점이 되었던 장소까지 거슬러 올라가 다층적 회상구조 속에서 반성적으로 되돌아보고자 했던 것이다. 고바야시 마사루는 역사적 시간에 매우 의식적인 작가였다. 예를 들어 그가 남긴 작품들 가운데 「당·1961년(党·1961年)」¹³⁾은 1961년에 있었던 전후 일본 공산당의 행보를 비판적으로 그린 소설이고, 「만세·메이지 52년(万歳·明治52年)」¹⁴⁾은 이른바 ‘메이지 100년’이 구가되던 1968년 상황에서 1919년 3.1운동의 기억을 마주세운 소설이다. 이와 같은 고바야시 마사루의 성향에 비추어보았을 때 「포드 1927」이 중국 지난에서 시작해서 끝난다는 설정이 ‘지난 사건’부터 시작된 기나긴 전쟁을 염두에 두었다는 추론은 충분히 성립 가능하다. 덧붙이자면 고바야시 마사루가 태어난 해도 1927년이었고, 포드 자동차가 요코하마를 거점으로 아시아에 진출한 해도 1927년이였다. ‘1927년’이라는 제목 속 시간 자체도 매우 다층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포드 1927」이 보여주는 다층적 시공간 구조는 ‘재조일본인 식민자 2세’라는 작가 고바야시 마사루의 경험과 연결되는 측면도 있다. 고바야시 마사루는 1927년에 진주에서 태어나 안동을 거쳐 대구에서 중학교를 졸업한다. 그리고 1944년 4월에 도쿄 인근에 있는 육군예과사관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계기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일본 본토 땅을 밟는다. 고바야시 마사루 자신은 사관생 후보인 상태로 패전을 맞이해 전장에 나가지 않았고 중국 대륙에 머문 경험도 없지만, 첫 째 형이 1944년 2월에 동부 뉴기니아 전장에서 전사하고, 1945년 10월에는 학도병으로 전쟁에 나갔던 둘째 형이 텐신에서 ‘병사’했다는 전보를 받는다.¹⁵⁾ 작가론적 측면에서 생각하면 고바야시 마사루와 그의 가족이 겪었던 역사적 경험이 1945년 중국 지난에서 시작해 식민지 조선과 일본 본토를 거쳐 다양한 회상을 경유하는 관점을 낳았다고도 할 수 있다. 소설집 『포드 1927』에는 「포드 1927」 직후에 발표한 「라라톤(拉拉屯)」¹⁶⁾이라는 소설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이 소설에는 식민지 조선으로 왔다가 또 다시 만주로 건너가 만주국의 암묵적 목인 하에 아편을 판매하면서 담보로 잡은 토지를 손에 넣는 일본인이 등장한다. 해당 소설은 이렇게 만주로 건너가 일본 제국주의가 만주국을 지배하는 말단에 종사하는 동료의 편지를 안타깝게 읽어가는 식민지 조선의 일본어 교사의 시점에서 전개되는데, 이와 같은 독특한 구조와 민감한 제제의 선택은 「포드 1927」이 보여주는 다층적 시공간 구조와 같은 상상력과 결합해 1950년대 중후반의 전후 일본문학에 매우 특이한 소설 세계를 탄생시킨 것이다. 히라노 겐이 고바야시 마사루의 첫 소설집 『포드 1927』 발간을 계기로 “민주주의 문학이 낳은

13) 小林勝(1962)「党·一九六一年」『文芸』9月、pp.12-36
 14) 小林勝(1976)「万歳·明治52年」『小林勝作品集第五卷』白川書院、pp.143-157
 15) 小林勝(1976)『小林勝作品集第五卷』白川書院、p.399
 16) 小林勝(1975)「拉拉屯」『小林勝作品集第一卷』白川書院、pp.33-48

거의 유일하게 재능 있는 신인”이라고 평가한 것도 위와 같이 고바야시 마사루 작품의 다층적 시공간 구조와 일본에만 갇히지 않은 역사적 상상력을 염두에 두었다고 생각한다.

3. 식민지 조선의 ‘터키인과 포드’

1945년 시점에 중국 지남에서 시작되는 다층적 시공간 구조와 더불어 터키인은 고바야시 마사루의 「포드 1927」에서 매우 이색적인 세계를 구축한다. 터키인의 비중은 「포드 1927」에서 매우 크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면밀한 고찰과 검증은 작품 분석에서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터키인은 1927년 무렵 마을에 처음 나타날 때부터 재조일본인들과 달랐다. “많은 일본인들이 이곳에 들어온 것은 모두 경편철도로 왔었지 이렇게 자동차로 다리를 건너서 온 사람은 처음”이었고, 그렇게 나타난 터키인은 “일본인과 달리 친근하게 웃으면서 손을 흔들었다”. 게다가 터키인이 탄 포드 자동차는 이제 막 공장에서 나온 것 같은 새 차였다. 터키인은 몇 년이 지나자 마을 외곽에 있는 도토리 언덕을 매입해 꼭대기에 큰 사각 굴뚝이 튀어나와 있는 서양관을 세웠는데, “겨울이 되어 그 굴뚝에서 기세 좋게 연기가 뿜어져 나오면 그 도토리 언덕만이 어딘가 먼 서양 나라처럼” 마을 사람들에게는 보였다. 그리고 이렇게 이색적이고 이질적인 터키인과 연결된 회상이 낙동강 발원지 산 속 마을에서 전개된다. 그런데 회상의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고바야시 마사루의 소설 「포드 1927」에 등장하는 터키인의 존재는 1945년 이전의 식민지 조선에서 얼마나 리얼리티를 지니는 존재였는지도 궁금해진다. 예컨대 터키인이 포드 자동차에 조선인들을 태워서 일요일의 드라이브를 하는 모습은 역사적 현실 속에서 가능했던 것일까. 결론을 미리 밝히자면 식민지 조선에서 터키인은 결코 낮은 존재가 아니었다.

조선은 의외로 일찍부터 터키에 관심을 기울였고 정보를 모았다. 그 관심은 식민지 시기보다 훨씬 앞선 개화기부터 시작되었다. 이는 열강 사이에 있는 조선의 상황이 당시 터키가 유럽에서 직면했던 상황과 유사했기 때문이다. 개화기에 조선 정부나 문명개화론자들은 열강 속에 놓여 있는 조선의 운명을 개척해야 한다는 절실한 문제의식에서 터키에 관심을 기울였던 것이다. 그런데 대한제국 정부와 문명개화론자의 터키 인식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대한제국 정부 관료들은 군주제 유지라는 측면에서 터키의 정치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문명개화론자들은 군주제를 유지한다는 점을 문명개화가 되지 않은 상태로 평가했던 것이다.¹⁷⁾

17) 크란 스벨(KIRAN SIBEL, 2017) 『근현대 韓國人의 터키관』 서울대학교대학원, pp.148-149

이러한 문명개화론자들의 터키관은 일본의 문명개화론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기도 하다. 예컨대 후쿠자와 유키치는 서구적 오리엔탈리즘에 기초한 문명개화론 관점에서 ‘페르시아, 터키, 중국’을 ‘미개’ 상태의 국가로 분류했는데 이러한 일본의 관점이 조선의 문명개화론자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¹⁸⁾

근대 조선의 터키관은 1919년 3.1 운동 이후 기존의 차이가 사라지고 다른 양상을 보인다. 3.1운동 이후 조선의 지식인들은 같은 시기부터 전개된 터키의 독립운동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이전에 존재하던 터키관의 차이는 자연스럽게 소멸되고 ‘독립운동’이라는 하나의 관심사로 수렴된다. 18세기와 19세기를 거치면서 서서히 쇠락하던 오스만 제국은 20세기에 접어들어 1912년의 발칸전쟁과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국이 아닌 ‘동맹국’에 참여한 결과 이전 오스만 제국 시절의 영토를 대부분 상실하고 국토분할과 식민지화의 위기에 처한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적 상황에서 케말 파샤를 중심으로 1919년부터 1923년에 걸쳐 터키의 독립운동이 전개되었던 것이다. 독립운동의 결과 터키는 1924년에 공화제 정치체제를 수립하고 케말 파샤가 초대 대통령이 되었는데, 이러한 터키의 독립운동 과정은 마찬가지로 독립을 지향하던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하나의 모델로 다가왔던 것이다. 예컨대 3.1 운동 이후 1920년대에 접어들어 조선의 신문은 터키의 상황을 빈번하게 보도했다. 그러한 가운데 터키의 ‘청년 튀르크당’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았다. 조선의 지식인들은 1938년 11월에 케말 파샤가 사망하자 많은 애도를 표하기도 한다.¹⁹⁾ 이처럼 식민지 조선 사회에서 터키는 결코 낮은 존재가 아니었던 것이다. 고바야시 마사루의 소설 「포드 1927」에서 조선인들은 일요일마다 터키인 집에 모이고 터키인도 조선인들에게 매우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이러한 설정은 픽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발 딛고 있는 것이다. 「포드 1927」속 터키인이 마을의 재조일본인들보다 조선인 어른들과 아이들에게 훨씬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설정도 실제 터키가 겪었던 국토분열과 식민지 전략 경험을 활용해 일본의 식민지 지배 상황을 비판적으로 되돌아보고자 하는 작가 고바야시 마사루의 역사인식이 투영된 것이다.

터키인들은 오스만 제국이 쇠퇴·해체되는 과정, 특히 1912년의 발칸전쟁과 제1차 세계대전 상황에서 적지 않게 국외로 이주한다. 그리고 그 행선지 가운데에는 멀리 떨어진 식민지 조선과 일본도 있었다. 「포드 1927」에서 터키인이 등장하는 회상의 시간은 앞서 확인했듯이 1937년의 중일전쟁 발발 직후인데 이 회상 속 시간과 인접한 1940년 시점에 조선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운데 터키인은 중국인(51,014명) 미국인(546명) 러시아인(162명)에 이어서 149명으

18) 크란 스벨(KIRAN SIBEL, 2017), 위 논문, p.154

19) 크란 스벨(KIRAN SIBEL, 2017), 앞의 논문, pp.89-98

로 4번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앞의 세 나라가 각각 영토의 인접성, 기독교 포교, 러시아 혁명 이후의 유입 등과 같은 저마다의 배경을 갖고 있었던 것에 비추어 볼 때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터키인 숫자가 차지하는 순위는 의외인 동시에 신선한 사실로 다가온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1937년 7월 21일자 『조선일보』에는 터키인의 선행을 소개하는 기사가 크게 실리기도 한다. 기사의 요점은 어느 터키인 부부가 오사카에 갔다 오던 길에 삼랑진 인근에서 남도지방의 수해상황을 목격하고 이재민들에게 구호품으로 옷을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기사에서 주목을 끄는 부분은 “나는 벌써 열 두 해 동안이나 조선에 와서 살고 있으므로 내 고향이나 다름없다”고 말한 인터뷰 내용과 터키인 부부가 양복점을 경영하고 있었다는 대목이다. 1937년 기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터키인 부부가 조선에 온 시점은 1926년이 되는데, 이러한 조선 이주 시점과 더불어 터키인 부부가 양복점을 경영했다는 사실은 소설 「포드 1927」 속 터키인 부부가 마을에 나타난 해가 1927년이고 그들이 양복점과 유사한 ‘오복상(吳服商)’을 했다는 소설 속 설정을 떠올리게 만든다.

물론 「포드 1927」이 1956년에 발표된 소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위의 신문기사가 소설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포드 자동차가 1927년에 일본 요코하마에 진출해서 일본, 조선, 중국에 판매를 시작했다는 사실 등을 감안하면 고바야시 마사루가 「포드 1927」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실 정보들을 수집하고 확인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고바야시 마사루는 1968년 시점에 전후 일본사회가 ‘메이지유신 100년’을 기점으로 역사적 기억을 재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지켜보며 1919년 3.1운동을 다룬 소설 「만세 메이지52년」을 발표하는데, 해당 소설은 1919년 당시 신문 기사를 상당 분량 인용하고 있다.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신문자료 데이터베이스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바야시 마사루는 소설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신문자료와 같은 역사적 자료와 정보를 직접 살펴보았던 것임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포드 1927」에 등장하는 터키인과 포드는 허무맹랑한 픽션이 아니라 실은 사실에 역사적 상상력을 가미해 만들어낸 존재들인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역사적 맥락과 사실에 상상력이 가미되어 빛어진 터키인은 작품 속에서 재조일본인들과의 차이를 통해 작품이 발표된 1956년 시점에서 1945년 이전의 역사를 반성적으로 되돌아보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터키인은 일요일마다 포드 자동차에 조선인 어른과 아이들을 태워서 마을을 한 바퀴 도는데, 이러한 설정은 터키인이라는 이질적인 존재 달리 표현하면 식민지 지배와 피지배 틀에서 벗어난 제3의 존재를 통해 식민지 상황의 문제를 드러내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다.

4. 차이와 단절, 그리고 ‘소문’

고바야시 마사루는 「포드 1927」에서 터키인과 재조일본인들의 차이를 거듭 묘사한다. 예를 들어 앞 장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터키인이 미소와 함께 손을 흔들며 마을에 나타났던 것에 반해 재조일본인의 등장은 다음과 같이 그려진다.

꽤 옛날 이 산속에 카키색 옷을 입은 군대가 최초로 왔다. 그것은 독립보병대대였다. 이 인근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폭동이 군대의 총검으로 짓밟히고 나서 몇 년인가 흘렀다. 그러자 경찰이 왔다, 상인이 왔다, 은행 지점이 왔다, 고리대금업자가 왔다, 재판소가 왔다, 학교 선생이 왔다. 조선인들이 일본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군대는 더 이상 필요 없어졌기 때문에 사라졌다.²⁰⁾

인용문은 일본인이 “낙동강 발원지 마을”에 유입되기 시작한 시점과 이후의 흐름을 역사적 흐름에 기초해서 압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특히 일본인들이 처음 마을에 나타난 모습이 ‘독립보병대대’라는 “카키색 옷을 입은 군대”였고, 그 군대가 “인근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폭동”을 “총검으로 짓밟”은 후 일본인들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했다는 대목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군대 이후에 이어진 ‘경찰, 상인, 은행, 고리대금업자, 재판소, 학교’ 등 일련의 흐름은 식민지 시기에 일본인들이 조선의 특정 지역에 유입되는 전형적인 과정이다. 고바야시 마사루는 위와 같이 재조일본인의 등장을 묘사한 직후 앞서 소개했듯이 “일본인과 달리 터키인은 친근하게 웃으면서 손을 흔들었다. 그들은 그렇게 마을에 들어왔다”라고 차이를 대비시킨다.

고바야시 마사루는 터키인과 일본인들의 차이를 아래와 같이 드러내기도 한다.

매월 바다를 건너오는 잡지 속 도쿄와 나고야에는 택시라는 것이 있어서... (중략)
그러나 어차피 그것은 바다 건너 일본의 이야기였다. 산 속 마을에 승용차는 없었다. 하물며 ‘자가용차’라는 것은 당연히 없었다. 경찰서장도 자가용차가 없었다. 군수 김(金)도 대지주 이(李)도 없었다. 광대한 포플러 숲을 저택 안에 갖고 있는 고리대금업자 이시가미(石上)도 없었다. 방이 18개나 있는 집을 신축해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척식은행의 사카모토(坂本)도 없었다. 그런데, 터키인만이 자가용차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²¹⁾

위 인용문은 식민지 조선의 일본인들이 일본 본토, 그 중에서도 도쿄와 같은 공간에 대해

20) 小林勝(1975)「フォード・一九二七年」『小林勝作品集第一巻』白川書院, p.12

21) 小林勝(1975)「フォード・一九二七年」『小林勝作品集第一巻』白川書院, p.11

가졌던 의식과 태도를 엿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롭지만 본 장에서는 ‘자가용차’를 매개로 드러나는 터키인과 재조일본인들의 차이에 보다 주목하고자 한다. 인용문 속 시간인 1937년 시점에 ‘자가용차’는 10년의 시간이 경과해 “이제 한 옛날 전의 오래된 포드”가 되었지만 이 포드는 소설에서 터키인과 재조일본인들의 차이를 부각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자가용차의 소유는 ‘서양관’과 더불어 ‘경찰서장, 군수, 고리대금업자, 척식은행장’으로 상징되는 재조일본인 유지들의 권위를 흔들고 있는 것이다. ‘군대’의 ‘총검’을 가지고 처음 등장한 이후 지배자적 우월감과 경멸의 시선으로 일관해왔던 일본인들과 달리 터키인은 ‘포드’를 매개로 마을의 조선인들과 친숙한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은 작품이 발표된 1956년 시점의 일본 독자들에게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포드 1927」속 터키인의 행보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그가 재조일본인들보다 마을의 조선인들과 훨씬 가깝게 지낸다는 점이다. 이는 작품 속 거주공간의 양상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난다.²²⁾ 재조일본인들은 경편철도 종점에 인접한 광장을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고, 터키인은 그 곳에서 벗어난 외곽의 도토리 언덕 정상에 서양관을 지었으며, 조선인 거주지는 도토리 언덕 발치에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거주 양상은 식민지 시기에 존재했던 조선인과 일본인 거주구역 사이의 보이지 않는 격차재편 상황을 전해주는 동시에 터키인과 조선인들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작품 속 터키인이 일본어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설에는 일본인과 교류하는 장면이 거의 없다. 이에 반해 터키인은 일요일마다 조선인들을 초대하고 어른과 아이들을 포드 자동차에 태워 일본인들 구역인 ‘공원’, 즉 마을 광장을 한 바퀴씩 돈다. 터키인의 이러한 행보는 당연히 마을의 일본인들에게 호감을 주었을 리가 없다. 고바야시 마사루는 “일본인들은 완전히 무시하거나 혹은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것 같은 얼굴을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터키인을 찌려보는 것이 아니라 ... 조선인들을 찌려보는 것이었다”라는 문장을 해당 장면에 끼워 넣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위와 같은 터키인의 행보가 재조일본인들 사이에서 “소문”을 낳는 양상으로 전개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소문’이라는 요소는 터키인 관련 회상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터키인과 마을의 일본인들 사이에 단절과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양자의 관계가 소문과 같은 형태로만 형성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소문은 단절 상황에서 싹트기 때문이다. 소문의 특성이 이러하기에, 소문은 그 내용의 진위 혹은 그것이 대상으로 삼은 쪽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소문을 만들어낸 쪽의 욕망 내지 심리를 드러낸다. 예컨대 「포드 1927」에서 터키인 관련 소문 가운데 하나는 “터키인은 오복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기독교 선교사”라는 내용이다. 마을의 일부 재조일본인들은 교회가 없는 이 동네에서 “터키인 집을 교회의

22) 오미정(2011)의 선행연구도 이 거주공간 양상에 주목했다. 오미정(2011), 앞의 논문, p.321

대용품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여긴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소문은 소문 그 자체의 사실 여부보다 일본인들의 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앞서 소개한 일요일의 드라이브를 지켜보는 일본인들의 시선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터키인이 기독교 선교사라는 소문은 터키인 자체에 대한 태도보다도 근본적으로는 조선인들과 닿아 있다. 즉 일본사회가 종교적인 측면에서 오랫동안 부정적인 태도를 취해왔던 기독교와 식민지 지배 하에 있던 조선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조선인들과 친하게 지내는 터키인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을 낳은 것이다.

‘터키인이 기독교 선교사이다’라는 소문은 또 다른 흥미로운 문제도 드러낸다. 터키인 관련 소문은 소설 속 재조일본인들 사이에 언쟁을 불러일으키는데, 이 과정에서 식민지 시기 재조일본인 사회의 결코 단순하지 않은 다층성, 혹은 균열이 드러난다. 소설에는 시계방 도교당 주인과 젊은 군청 공무원인 모로즈미가 위 소문을 놓고 언쟁을 벌이는 장면이 있는데, 공무원 모로즈미는 “터키인들은 대부분 회교도이기 때문에 기독교 선교사일 수가 없다”라고 반박하면서 은연중에 도교당 주인에게 “경멸”의 시선을 보낸다. 이에 대해 도교당 주인은 “어려운 것은 모르겠지만 일요일에 조선인이 모이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터키인 집이 교회라는 것이죠”라는 빈약한 대응밖에 하지 못한다. 그리고 주목할 것은 여기에 이어서 작가 고바야시 마사루가 “모로즈미씨는 나이는 비록 젊었지만 ... 동네에서는 지식인 그룹에 속해서 도교당 주인이나 건어물 가게 시나노야 주인이 하는 말을 평소 경멸했다. 그리고 이것은 모로즈미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은행, 군청, 재판소 등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어딘가 그런 경향이 있었다”라고 삽입한 대목이다. 「포드 1927」은 재조일본인 식민지2세 소년의 조선에 대한 ‘그리움’보다는 식민지 2세의 시선이 포착한 재조일본인 1세대들의 의식과 태도, 그리고 재조일본인 사회 내부의 다층성-균열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작품이 1956년에 발표되었다는 사실까지 함께 고려하면 해당 장면은 앞 장에서 살펴본 경우와 마찬가지로 식민지 시기 재조일본인 사회의 문제점을 반성적으로 되돌아보게 만드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고바야시 마사루는 해당 장면에서 아래와 같이 적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일요일에 터키인 집에 가서 진위를 확인한다는 실증적 방법을 마을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생각하지 못하는 척 했다. 왜냐하면 일본인들은 각각 고향의 불단에서 멀리 이곳 낙동강의 산 속까지 정토진중이나 조동종이나 일연종과 같은 것을 등에 짊어지고 왔기 때문에 기독교에는 이유 불명의 반감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이것은 공공연하게 입에 올리는 사람도 있었는데—조선인 따위와 친구처럼 지내는 터키인 집에 간다는 것은 나서서 조선인과 대등해지는 것이라는 생각이 지극히 일반적이었던 것이다.²³⁾

23) 小林勝(1975)「フォード・一九二七年」『小林勝作品集第一巻』白川書院, p.15

위 인용문은 ‘재조일본인들의 조선인관’이라는 측면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지만 본 장의 논지에서는 ‘진위 확인을 위한 실증적 방법’을 취하지 않는, 혹은 취하지 못하는 원인도 조선인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소문’은 표면적으로는 터키인을 향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재조일본인들의 조선인에 대한 시선과 심리를 드러내고, 다른 한편에서는 식민지 시기 재조일본인 사회의 균열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작품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소문’도 등장한다. 마을의 일본인 아이들은 도토리 언덕에 도토리를 주우러 가는 도중에 반드시 조선인 부락을 통과해야 하는데, 아이들은 그 조선인 부락의 제일 안쪽에 “사람을 잡아먹는 할머니가 산다”는 소문에 두려워한다. 이것은 마을의 일본인 아이들 사이에 공유되는 소문처럼 그려져 있지만 결국 이 소문도 마을의 일본인 어른들, 혹은 보다 확대하면 식민지 시기 재조일본인들의 의식-무의식과 닿아 있다. 이 소문에 담긴 요소는 모종의 두려움-공포인데, 이 두려움-공포는 비록 식민지 지배국의 국민이지만 절대 다수의 조선인들이 있는 공간에서 숫자 면에서는 소수자였던 재조일본인들이 품을 수밖에 없었던 근원적 두려움-공포와 연결되어 있다. “일요일에는 조선인이 모이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터키인 집이 교회라는 것이죠”라는 도쿄당 주인의 말도 곱씹어 보면 조선인이 ‘모인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경계심도 품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앞서 살펴 본 터키인 관련 소문까지 포함해서 생각하면 소설 「포드 1927」 속 소문들은 재조일본인들과 조선인 및 터키인 사이의 보이지 않는 격리-단절 상황을 드러내는 동시에 재조일본인들 내부의 다층성-균열상, 그리고 재조일본인들의 무의식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고바야시 마사루가 소설집 『포드 1927』에 함께 수록한 작품 가운데 「일본인 중학교」²⁴⁾라는 단편이 있다.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대구의 일본인 중학교에 부임한 젊은 영어교사가 학생들의 인기를 독차지 하는 가운데 어느 날 그가 조선인이라는 소문이 돌고, 결국 학생들이 ‘최’라는 이름이 새겨진 옷을 확인한 후 조선인임을 조롱하는 장난에 상처를 입은 교사가 학교를 그만두고 만주로 떠난다는 내용이다. 이 소설은 실제 최규하 전 대통령이 대구중학교에서 겪었던 실화에 역사적 상상력을 가미한 텍스트인데, 본 장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해당 소설에서도 차별의식과 단절이 낳은 소문이 결국 배제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소문은 단절 상황이 낳는다. 소문과 배제-혐오는 사실 여부가 실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 혹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싹튼다. 그리고 이러한 소문은 그것을 만들고 공유하는 집단의 욕망, 의식과 무의식, 불안감-열등감과 닿아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에서 기존 선행연구들이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소설 「포드 1927」에 등장하는 소문들은 식민지 시기

24) 小林勝(1975)「日本人中学校」『小林勝作品集第一卷』白川書院, pp.101-118

재조일본인 사회의 의식과 무의식, 재조일본인사회의 균열 등을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5. 총과 광기, 그리고 3.1운동의 그림자

소설 「포드 1927」에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총’과 관련된 두 사건이다. 첫 번째 사건은 1937년 무렵의 어느 봄날 소년 시절의 ‘나’가 “모든 페이지에서 초연(硝煙) 냄새가 올라”오는 잡지를 보다가 식모인 순희에게 거짓말을 한 채 경부보인 아버지가 아끼는 ‘벨기에산 5연발 엽총’이 있는 방으로 향하면서 시작된다. 이 엽총은 소년이 절대 만져서는 안되는 ‘금기’의 대상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물론이고 조선인 식모인 순희조차 엽총에 관한 ‘감시자’가 된다. 그러나 회상 속 1937년 봄날에는 “잡지 속의 멀리서 일어나는 전쟁이 나를 건잡을 수 없이 흥분”시켜서 소년으로 하여금 몰래 아버지의 방으로 건너가 총을 집어 들게 만든 것이다.

나는 총을 겨우 받치고 후스마를 겨누는 흥내를 냈다. 그 때 갑자기 눈앞의 후스마가 확 열렸다. 뜨고 있던 오른쪽 눈과 조문(照門)과 조성(照星) 위에 있을 절반쯤 벌린 순희의 얼굴이 떠올랐다. 총구는 똑바로 순희의 얼굴을 향해 있었다. 순희의 얼굴은 금세 새파래지고 새하얘졌다. 그러자 갑자기 미치광이 같은 즐거움이 내 몸을 뜨겁게 했다.

—“쏟테다”라고 말했다. 물론 농담이었다.

—“자, 쏜다, 쏜다”²⁵⁾

소년은 물론 총알이 장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용문에 있는 “쏟다”는 위협은 장난이었다. 하지만 이런 사정을 모르는 순희의 얼굴은 공포에 젖어 창백해진다. 그리고 순희의 안색 변화는 소년에게 “미치광이 같은 즐거움”을 안겨주었던 것이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작가 고바야시 마사루가 왜 이런 장면을 설정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소년의 장난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기는 하지만, 독자들은 순간적이나마 해당 장면에서 모종의 긴장과 광기를 느끼게 된다. 더욱이 일본인 소년 ‘나’의 총구 앞에 겁에 질린 채 서 있는 조선인 식모 순희의 모습은 일본인들이 예전에 마을 인근에서 일어났던 “폭동”을 “군대의 총검으로 짓밟”고 나서 ‘경찰, 상인, 은행, 고리대금업자’와 같은 순서로 이주해왔다는 앞선 서술과 함께 암암리에 3.1운동을 연상시킨다. 즉 위 인용문은 ‘총’으로 대면했던 재조일본인

25) 小林勝(1975)「フォード一九二七年」『小林勝作品集第一巻』白川書院、p.18

들과 식민지 조선인들의 역사를 함축한다고 할 수 있다.

소설 「포드 1927」에는 ‘총’과 관련해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이 있다. 그것은 소년이 공기총으로 터키인 부부의 어린 소녀를 다치게 하는 사건이다. 터키인은 어느 날 소년에게 일본어로 말을 걸면서 자기 집에 놀러오라는 말을 하는데, 소년은 혼자서 가는 것이 두려워 여름방학을 맞아 기숙학교에서 돌아올 누나를 기다렸다가 함께 도토리 언덕 위 터키인 집으로 향한다. 이 때 소년은 장난감이지만 납 총알을 발사할 수 있는 공기총을 가져간다. 그런데 터키인 집에 도착한 소년과 누나는 도토리 언덕 밑에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도(轉倒)된 상황을 경험한다. 터키인 아이가 일본어를 당연히 하리라고 생각했던 소년과 누나는 일본어는 통하지 않고 조선어는 통한다는 사실에 어쩔 수 없이 서툰 조선어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이 상황에서 소년은 “그 때 나는 언덕 아래 작은 마을에서는 조선인을 바보취급하고 살았지만 이 언덕 위에서 나와 누이는 자동차와 기차라는 두 단어 말고는 있을 곳이 없는 먼 외국에 와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그 외국의 주인공들은 세 명의 조선인 아이와 금발의 터키 여자아이였다”²⁶⁾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심 분노에 휩싸인다. 소년은 이 상황에서 나타난 강이지조차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고 느끼고 개를 향해 공기총을 발사하지만 정작 총알은 터키인 소녀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고 만다. 이어서 터키인 소녀의 비명소리와 함께 다음과 같은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진다.

내 눈 앞에는 소녀의 하얀 발꿈치에 조금 박힌 납 총알이 어른거렸다. 무어라고 외치고 있는 조선인 아이들의 바쁘게 움직이는 입이 집안에서 달려나온 공포로 휘둥그레진 터키인의 눈과 겹쳐졌다. 나를 둘러싼 조선인 어른들이 보였다. 그리고 누구 한 사람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떤 화난 목소리도 내지 않아서, 사건의 장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부외자(部外者) 취급 당했을 때의 말할 수 없는 허탈감이 전신을 휘감았다.²⁷⁾

이것이 총과 관련된 또 하나의 사건이다. 해당 장면은 당연히 일본어가 통한다고 생각하는 재조일본인 식민자 2세들의 의식과 더불어 일상적 지배 상황에서 벗어난 전도(轉倒) 경험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논할 수 있지만, 본 장에서는 총과 관련된 사건이라는 측면에 초점에 맞추고자 한다. 소년은 작품 속 총과 관련된 두 사건에 모두 걸쳐있는 존재이다. 소년은 앞선 사건에서 조선인 순회를 총으로 겨누면서 “갑자기 미치광이 같은 즐거움”에 몸이 달아 오르는 경험을 하고, 두 번째 사건에서는 일본어가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직전까지 품었던

26) 小林勝(1975)「フォード・一九二七年」『小林勝作品集第一卷』白川書院, p.24

27) 小林勝(1975)「フォード・一九二七年」『小林勝作品集第一卷』白川書, p.25

우월감이 “면 외국에 와버린 것 같은” 소외감으로 바뀌면서 “분노”에 휩싸인다. 총과 관련된 두 사건에서 소년은 각각 광기와 분노에 휩싸이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고바야시 마사루는 1937년을 배경으로 한 회상의 시간대 안에서 한 편으로는 재조일본인 어른들이 만들어낸 터키인을 향한 ‘소문’을, 다른 한 편에서는 식민지2세 소년이 중일전쟁이 벌어지는 상황 하에서 ‘총’을 매개로 휩싸이게 되는 광기와 분노를 배치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양자 모두에 걸쳐있는 심리는 표면적 “우월감”의 이면에 잠재된 콤플렉스와 불안감이다. 고바야시 마사루는 1956년 시점에서 위와 같은 허구적 사건들을 설정함으로써 일견 견고해보였던 식민지 지배 상황과 우월감의 이면에 콤플렉스와 잠재된 불안의식이 존재하기도 했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중국의 지난에서 일본군 패잔병이 된 상황에서 소년 시절의 총 관련 사건을 회상한다는 소설의 설정은 역사적 반성과 객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구조였다고 할 수 있다. 고바야시 마사루는 해당 회상 시간대를 마무리하는 대목에서 “일찍이 낙동강 발원지 마을에서 그곳과 육지로 이어진 똑같은 파란 하늘 아래 아주 먼 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 먼 곳이란 바로 여기였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반대로 이 지점에서 네모난 창을 통해 아주 먼 낙동강 산골 마을을 떠올리고 있다”는 문장을 삽입하는데, 이러한 문장도 소년 시절의 광기와 분노가 이후의 역사적 시간 속에서 어떤 결과-상황으로 이어졌는지를 1956년의 일본 독자들에게 보다 명확히 전달하기 위한 장치였다고 할 수 있겠다.

「포드 1927」을 ‘총’과 관련지어 읽을 경우, 집에 돌아와도 가족들과 이야기도 나누지 않는 채 총만 손질하는 소년의 아버지에게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소년 아버지의 모습은 소설집 『포드 1927』에 수록된 또 다른 단편 「일본인 중학교」 속 고로(五郎) 소년의 아버지와 연결된다. 「일본인 중학교」 속 고로 소년의 아버지는 「포드 1927」 속 소년 ‘나’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경부보인데, “조선인만큼 신용할 수 없는 놈들은 없어”라는 말을 “항상 마음에서 우러나는 확신처럼” 고로 소년에게 들려주는 인물이다. 동시에 고로 소년이 조금 자라자 많지 않은 월급에서 “매월 도쿄에서 출판되는 그림책과 잡지를 사주기 시작”한다. 이러한 「일본인 중학교」 속 설정은 「포드 1927」에서 소년이 “매월 바다를 건너오는” 잡지를 보는 장면을 떠올리게 만들기도 한다. 그런데 본 장에서 중요한 대목은 소설 「일본인 중학교」 속 고로 소년의 아버지가 ‘순사’ 시절 겪었던 다음과 같은 경험이다.

고로의 아버지는 그 유명한 만세사건이 일어났을 때 시골의 평순사(平巡査)였다. 그에게는 어느 날, 완전히 갑자기, 그것도 어떤 필연성도 없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그 날은 맑게 갠, 조용한, 아침이었다. 평온했던 부락에서 무언가 소란이 일었다. 그것은 처음에 무언

가를 축하하는 것 같았다. 부락에서 많은 사람들이 ‘만세, 만세’라고 조선어로 소리치고 있었다. 그 소리는 점점 커지고, 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해지면서 조금씩 살기를 띠며 단호한 의지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점점 경찰서로 다가왔다. 경찰관에게 비상소집이 떨어지고 뭐가 뭔지 모른 채 긴장된 얼굴을 한 상관한테서 총과 실탄을 받았다. 그것은 구식 무라타(村田) 총이었지만 충분히 사람을 죽일 수 있었다.²⁸⁾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고로의 아버지는 방아쇠에 손가락을 건 채 앞으로 나아가는데, 평소 친하게 지내던 조선인 노인이 탁하고 충혈된 눈을 부릅뜬 채 줄 제일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작스러운 분노를 느낀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과 같은 장면이 전개된다.

—“돌아가”라고 그는 조선어로 말했다. “순순히 돌아가지 않으면 쏘겠다”

그리고 그는 노인의 가슴에 총구를 향했다. 노인은 자신의 나라 말로 딱 잘라 말했다.

—“오, 일본인, 쏠테면 썩 보아라.”

그리고 노인은 마른 대구(干鱈)와 같은 두 손을 뻗어서 총신을 잡자 힘주어 자신의 가슴 쪽으로 잡아 당겼다. 고로의 아버지는 끌려가지 않으려고 총을 몸 쪽으로 당겼다. 그러자 벌어질 법한 일이 벌어졌다.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고 있었기 때문에 총에서 총알이 발사되었던 것이다. 노인은 눈을 뜬 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고로의 아버지를 응시하고서는 지면에 쓰러졌다.²⁹⁾

소설 「일본인 중학교」를 읽어 보면 경부보인 고로의 아버지가 조선인에 대한 차별적 선입견을 고로에게 들려주기 시작한 것은 인용문에 있는 1919년 3.1운동 이후부터이다. 역사적 평가 문제와는 별도로 작품 속 고로 소년의 아버지는 인용문에 있는 사건이 트라우마처럼 남아 조선인에 대한 극단적 차별의식을 품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본인 중학교」 속 고로 소년의 아버지의 역사적 경험은 「포드 1927」 속 소년의 아버지가 귀가 후 보여주는 침묵과 ‘총’에 대한 강한 금기를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앞서 소개한 「포드 1927」 속 소년이 총으로 순회를 겨누고 겁주는 장면은 3.1운동을 연상시키는데, 같은 소설집의 또 다른 작품에 등장하는 위와 같은 장면까지 확인하면 작가 고바야시 마사루가 1956년 시점에 1919년의 3.1운동을 분명히 의식하고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포드 1927」 속 “낙동강 발원지 마을”에 일본인이 처음 등장한 것이 “카키색 옷을 입은 군대”였고 이 독립보병대대는 “인근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폭동”을 “군대의 총검으로 짓밟”기 위해 왔었다는 서술도 3.1운동을

28) 小林勝(1975)「日本人中学校」『小林勝作品集第一卷』白川書院, p.107

29) 小林勝(1975)「日本人中学校」『小林勝作品集第一卷』白川書院, p.108

염두에 둔 설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고바야시 마사루는 이렇게 1956년 무렵의 소설 속 원경에 두었던 3.1운동을 10여년이 지난 1968년 시점에는 소설 「만세 페이지52년」이라는 형태로 작품의 전면에 드러낸다. 이러한 전개 양상은 작가 자신의 역사적 이해 과정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즉 고바야시 마사루는 1956년 시점에 소설 집필과정에서 3.1운동을 분명히 의식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작품 전면에 내세울 수 있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다가, 1968년 시점에 전후 일본사회가 ‘페이지 100년’을 구가하는 상황에서 100년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3.1운동이 ‘페이지 100년’을 구실로 역사적 기억을 재구축하려는 상황을 비판하면서 일본의 근대를 상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렇게 보면 「포드 1927」 속 총과 광기는 역사적 기억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작가 고바야시 마사루 소설의 중요한 문제의식의 원형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6. 마치며

앞서 언급했듯이 「포드 1927」의 회상 구조는 1937년 무렵의 식민지 조선의 기억에 이어서 1940년대 전쟁 말기 도쿄, 그리고 “낙동강 발원지 마을”을 재방문하는 순서로 전개된다. 1937년 이후의 소설 속 시간에 대해서는 “긴 시간이 지났다. 아버지는 산 속 마을 경찰에서 도회지 경찰로 전근했다. 우리 일가는 내가 중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도회로 옮겨와 살았다. 그리고 나는 외국어학교 학생이 되어 도쿄로 갔다”³⁰⁾라는 문장이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외국어학교 학생 신분으로 태어나서 처음 도쿄에 건너온 ‘나’는 “공상하던 것”과 판이한 현실을 목격한다. “머나먼 곳에서 벌어지던 전쟁은 이름도 대동아전쟁으로 바뀌어 도쿄의 하늘까지 와 있었고”, “공상하던 공중전은 매일같이 머리 위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많은 일본 비행기가 연기를 뿜으며 떨어지는” 현실 상황을 목도한다. 이런 상황에서 “수업대신 소개(疏開) 작업만 하는 학교에 가기 싫었던” ‘나’는 몰래 우에노 도서관에 틀어박혀 책을 읽는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귀가하던 도중 골목길에서 “눈동자도 납색으로 빛나 윤기가 전혀 없이 한 조각의 생명도 깃들여 있지 않은” 어떤 얼굴과 대면한다.

30) 小林勝(1975)「フォード一九二七年」『小林勝作品集第一巻』白川書院、p.26

—죽은 사람 얼굴 캐리커처구나’라고 나는 중얼거렸다. 그리고 한 발 내디딘 순간 숨이 멎을 정도로 놀랐다.

햇빛의 기분 나쁜 반사는 사라졌다. 색은 제각각 본래의 색채로 되돌아와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나와 동년배인 비행모를 쓴 ‘와카와시(若鷺)’ 한 명이 높은 하늘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것은 “뇌격기(雷擊機)는...”이라는 말이 적힌 전의 고양 영화 포스터였다. 와카와시의 눈은 하늘의 한 점을 향해 빛나고 있었다. 나는 눈을 의심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의식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나보았다. 그러자 나는 다시 모든 것이 탁하게 반사되어 색채도 글자도 공허하게 떠오르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것이었다. 즉 지는 해를 받은 포스터를 일정 각도에서 보면 그렇게 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³¹⁾

인용문에 담긴 ‘전의 고양 포스터’ 속 얼굴의 변화와 그 분위기는 1940년대 전쟁 말기 도쿄와 일본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주는 동시에 ‘나’의 운명을 암시한다. 그리고 운명의 암시를 감지한 탓인지 ‘나’는 포스터 사건이 있는 다음날 실신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상태의 소년도 “문과학생의 징병연기가 이미 없어진” 상황에서는 전쟁에 동원되었다. 위 묘사는 구체적인 찰나를 포착해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드러낸 작가 고바야시 마사루의 감각적인 묘사가 돋보이는 대목인 것이다.

징병으로 전장에 나가기 전에 ‘나’는 어린 시절을 보낸 “낙동강 발원지 마을”을 다시 한번 방문한다. 하지만 동경했던 도쿄의 현실이 공상했던 바와 달랐던 것처럼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다시 찾은 낙동강 발원지 마을도 그 사이에 “놀라울 정도로 일변해 있었다”. “공원에 면해 있던 집은 내 기억 속에 있는 집들에 비해 훨씬 납작하고 지저분했다. 공원도 놀랄 만큼 작은 공터였다”는 당혹감 속에서 옛집 주위를 거닐던 ‘나’는 기억을 더듬어 순희의 집을 찾아간다. 그리고 혼자 젓먹이 아기를 안고 있는 순희와 대면한다. 하지만 많은 것이 “일반”한 것처럼 순희의 모습도 예전과 달랐다. 순희의 얼굴은 “피로를 드러내는 주름”으로 가득했다. ‘나’는 그러한 순희의 얼굴을 보면서 “무언가가 순희한테서 청춘을 영원히 빼앗은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순희한테서 청춘만 빼앗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감득한다. 인용문에 있는 ‘무언가’는 전후 문맥으로 볼 때 전쟁이다. 그리고 ‘나’는 전쟁이 순희한테서 청춘뿐만 아니라 남편이나 삶의 생기와 같은 많은 것들도 빼앗아 갔다는 사실을 다시 찾은 “낙동강 발원지 마을”에서 확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고바야시 마사루가 1937년 무렵의 회상에 이어서 전쟁 말기 도쿄를 경유해 “낙동강 발원지 마을”을 재방문하는 것으로 소설의 구조를 짠 것은 1927년에 시발점을 두고 1945년까지 이어졌던 전쟁이 일본 본토는 물론이고 식민지

31) 小林勝(1975)「フォード・一九二七年」『小林勝作品集第一巻』白川書院、p.27

조선과 중국에 무엇을 남겼는지, 혹은 그 곳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빼앗은 것”인지를 반성적으로 되돌아보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포드 1927」은 단지 식민지 2세 소년의 시선과 감성에 제한된 텍스트가 아니라 작품이 발표된 1956년 시점, 달리 표현하면 “이제 전후는 끝났다”는 캐치프레이즈와 ‘55년 체제’로 상징되는 전후 일본의 보수적 정치체제의 출현 속에서 역사적 기억이 풍화 혹은 지워져가는 시점에서 의식적으로 1945년까지 이어졌던 전쟁의 기억을 상기시키면서 역사적 상상력을 중국의 지난과 식민지 조선의 “낙동강 발원지 마을”까지 확장해서 일본이 많은 것을 “빼앗은” 시간·장소들과 대면시키려는 텍스트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포드 1927」의 끝 부분에는 또 하나 중요한 ‘소문’이 등장한다.

전쟁의 이름이 바뀌자 마을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대규모 전람회가 몇 번이나 열렸다. 전람회장 입구에는 큰 포스터가 붙었다. 그 안에는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혼도시가 풀어지려는 상황에 어찌할 줄 몰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런 글씨가 있었다.

—루즈(느슨한) 벨트(혼도시)!

“조선에 사는 외국인을 조심해라, 그들은 스파이다!”라는 그림도 있었다. 그 전람회 후에 터키인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의견 대립은 돌연 하나의 결론을 발견하는 것으로 해소되었던 것이다.

—선교사이건 아니건, 아무튼 조선인을 저렇게 모아서 틀림없이 스파이를 했던 것임에 틀림없어.³²⁾

인용문에 등장하는 전람회장의 포스터는 ‘나’가 도쿄의 골목에서 목격한 전의 고양 포스터와 함께 도쿄와 “낙동강 발원지 마을”을 매개한다. 한편 도쿄 골목에 있던 포스터 속 “납색으로 윤기가 전혀 없이 한 조각의 생명도 깃들어 있지 않은” 얼굴은, 많은 것을 빼앗긴 채 “피로를 드러내는 주름”으로 가득했던 순희의 얼굴과 연결된다. 그야말로 이름이 바뀌어 도쿄의 하늘까지 와 있던 전쟁은 낙동강 발원지 마을도 뒤덮었던 것이다. 위 인용문은 식민지 조선에서 전개되었을 전쟁 관련 전람회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터키인을 향한 또 다른 ‘소문’이 생겨났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인용문에 담긴 “터키인은 스파이”라는 소문은 앞서 본론에서 살펴보았던 “터키인은 기독교신자”라는 소문과 더불어 다시 한 번 소문을 만들어낸 측의 욕망과 심리를 드러낸다. 그리고 이 소문은 소설집 『포드 1927』에 함께 수록된 「일본인 중학교」 속 소문이 혐오와 배제로 이어졌던 것처럼 터키인을 마을에서 몰아내는 결과로 이어진다. 기존 선행연구들이 전혀 주목하지 않았지만 「포드

32) 小林勝(1975)「フォード・一九二七年」『小林勝作品集第一巻』白川書院、pp.30-31

1927」속 소문들은 역사적 상상력이 발휘된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소설 「포드 1927」은 고바야시 마사루가 1956년 시점에 다층적 시공간 구조에 다채로운 역사적 상상력을 가미해서 1945년 8월까지 이어졌던 전쟁의 기원 지점까지 거슬러 올라가 그 전쟁이 다양한 시공간 속에 남긴 상처와 기억을 상기시키는 텍스트이다. 이러한 창작행위는 1927년에 식민지 조선에서 태어난 식민자 2세 고바야시 마사루가 자신이 태어난 시점부터 1945년까지 이어졌던 전쟁의 시간을 총괄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일본의 전후 체제에 반문을 던지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민주주의 문학이 낳은 거의 유일하게 재능 있는 신인”으로 평가받을 만한 것이었다. 어느 때부터 기존의 ‘태평양전쟁’이라는 용어를 비판적으로 상대화 하면서 ‘아시아-태평양 전쟁, 15년 전쟁’이라는 용어와 인식이 보편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비추어보면 고바야시 마사루가 1956년 시점에 「포드 1927」에서 1927년을 기점으로 구축한 다층적 시공간 구조와 역사적 상상력은 기존의 태평양 전쟁이라는 용어에 기초한 의도된 역사적 기억의 제약과 그와 연동된 역사적 책임의 소거 작업에 대해 매우 선구적으로 문제제기를 던진 역사적 상상력의 문학적 구현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 오미정(2011) 「고바야시 마사루의 「포드·1927」론 -중개는 가능한가?」 『일어일문학연구』 제78호, 한국일어일 문학회, pp.315-330
- 이원희(2001) 「고바야시 마사루 문학에 나타난 식민지조선」 『일어일문학연구』 제38집, 한국일어일문학회, pp.215-232
- 최준호(2011) 「고바야시 마사루의 식민지 조선 인식 -초기 작품들 속 인물표상을 중심으로」 『일본어문학』 제48집, 한국일본어문학회, pp.139-156
- 크란 스벨(KIRAN SIBEL, 2017) 『근현대 韓國人の 터키관』 서울대학교대학원, pp.1-309
- 하라 유스케(2011) 「그리움을 금하는 것 -조선 식민자2세 작가 고바야시 마사루와 조선에 대한 향수」 『일본연구』 제15권,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pp.311-332
- 朴裕河(2016) 『引揚げ文学論序説:新たなポストコロニアルへ』 人文書院, p.111
- 朴元俊(1971) 「小林勝氏の急逝を悼む」 『朝鮮研究』 104, 日本朝鮮研究所, p.50
- 井上幸子(2015) 「戦後日本と小林勝「フーオド・一九二七年」の場所の構成と戦争認識」 『日本近代学研究』 第50輯, pp.281-301
- 川村湊(1996) 「「大東亜」の戦後文学第六回:小林勝外伝」 『文学界』 50(5), 文芸春秋社, pp.278-296
- 小林勝(1962) 「党・一九六一年」 『文芸』 9月, pp.12-36
- _____(1975) 「フーオド・一九二七年」 『小林勝作品集第一卷』 白川書院, pp.7-32
- _____(1975) 「拉拉屯」 『小林勝作品集第一卷』 白川書院, pp.33-48
- _____(1975) 「日本人中学校」 『小林勝作品集第一卷』 白川書院, pp.101-118
- _____(1976) 「万歳・明治52年」 『小林勝作品集第五卷』 白川書院, pp.143-157

長谷川四郎(1975)「解説 小林勝」『小林勝作品集』第一巻、白川書院、p.356

藤井徹(1975)「解題」『小林勝作品集第一巻』白川書院、p.358

村上陽子(2016)「植民者二世と銃-小林勝「フーード・一九二七年」について-」『沖繩国際大学日本語日本文学研究』第21巻 1号、pp.89-105

논문투고일 : 2018년 10월 01일
심사개시일 : 2018년 10월 17일
1차 수정일 : 2018년 11월 12일
2차 수정일 : 2018년 11월 15일
게재확정일 : 2018년 11월 19일

 < 要 旨 >

고바야시 마사루 「포드 1927」의 시공간 구조와 역사적 상상력

최범순

소설 「포드 1927」은 고바야시 마사루가 1956년 시점에 다층적 시공간 구조에 다채로운 역사적 상상력을 가미해서 1945년 8월까지 이어졌던 전쟁의 기원 지점까지 거슬러 올라가 그 전쟁이 다양한 시공간 속에 남긴 상처와 기억을 상기시키는 텍스트이다. 이러한 창작행위는 1927년에 식민지 조선에서 태어난 식민자 2세 고바야시 마사루가 자신이 태어난 시점부터 1945년까지 이어졌던 전쟁의 시간을 총괄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전후 체제에 반문을 던지려는 것이었다. 어느 때부터 기존의 ‘태평양전쟁’이라는 용어를 비판적으로 상대화하면서 ‘아시아-태평양 전쟁, 혹은 15년 전쟁’이라는 용어와 인식이 보편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고바야시 마사루가 소설 「포드 1927」에서 보여주었던 1927년을 기점으로 한 다층적 시공간 구조와 역사적 상상력은 기존의 태평양전쟁이라는 용어에 기초한 의도된 역사적 기억의 제약과 그와 연동된 역사적 책임의 소거 작업에 매우 선구적으로 문제제기를 던진 역사적 상상력의 문학적 구현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겠다.

Time-Spatial Structure and Historical Imagination of Masaru Kobayashi's novel “Ford 1927”

Choi, Bum-soon

The novel “Ford 1927” was published in May 1956 by Masaru Kobayashi. The problem of this book was noted as the “nearly the only talented new born of democratic literature” in the late 1950s, and even though it was in the context of literary writers representing the time, researchers representing Japan should “review” until 2008.

The novel “Ford 1927” is a scar that dates back to the origins of the war that lasted until August 1945, adding a variety of historical imagination to the multi-layered space structure of Masaru Kobayashi. This creative act was intended to challenge the newly emerging postwar system, taking charge of the time of war that lasted from the time he was born to 1945, Masaru Kobayashi, the second ruler of colonial Joseon in 1927. Since some time ago, the term “Asia-Pacific War,” or 15-year-old war, has become more common. Given the fact that this situation is not very long ago, I would like to think that Masaru Kobayashi is responsible for a multi-layered literature project based on the existing term of Pacific War.